

중국 지역발전의 최근 변화와 전략(III): 중·서부 지역

1. 개요

- 동부 연해지역과 달리 중·서부지역은 지리적, 역사적 이유로 인해 경제발전이 비교적 낙후되었으나, 중국 정부의 “내수확대, 경제성장 유지” 등을 비롯한 정책지원으로 지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
- 중·서부지역은 공업화 초·중기 단계로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중국경제를 이끌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동부 연해지역이 큰 타격을 받은 반면 내수형 경제체인 중·서부 지역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 달성(2009년 상반기 기준)하였음.
- 중부지역의 경우 산시(山西)를 제외한 6개 성의 2009년 상반기 GDP 성장률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았으며, 구체적으로는 안후이(安徽) 11.8%, 후베이(湖北) 11.3%, 장시(江西) 10.6%, 허난(河南) 8.2%, 후난(湖南) 12.8%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전국에서 GDP 성장률이 12% 이상인 6개 성시 중 4개가 서부지역인 네이멍구(內蒙古), 쓰촨(四川), 광시(廣西), 충칭(重慶)이며 특히 네이멍구는 16.2%로 전국 1위를 차지함.

2. 서부지역의 최근 변화와 전략

가. 청위경제구(成渝經濟區)

- 중국 4대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청위경제구의 구역범위와 전략적 기능이 “청위경제구구역 계획편집공작 좌담회(成渝經濟區區域規劃編制工作座談會)¹⁾”에서 결정됨.
- 청위경제구의 계획범위는 직할시인 충칭시와 쓰촨의 성도인 청두(成都)시를 중심으로 쓰촨의 15개 도시와 충칭시로부터 1시간 범위 안에 위치한 31개 현을 포함하며 총 면적이 20.61만 km²로 약 4만 km²가 확장됨.(그림1 참고)
- 2007년 쓰촨과 충칭시가 체결한 “쓰촨-충칭 공동협력하의 청위경제구 건설 추진에 관한 협력협약서(關於推進川渝合作共建成渝經濟區合作協議)”에 의하면 당초 경제구를 37개 시와 현으로 결정²⁾, 면적은 16.8만 km²이었음.
- 청위경제구의 전략적 기능은 △서부대개발의 성장지 또는 경제고지(經濟高地), △국가의 주요 선진장비제조업기지, 현대서비스 산업기지, 첨단기술 산업기지, 농산물기지, △전국 통합도농 종합체제개혁 시범시행구(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區), 국가 내륙 개방 시범구(國家內陸開放示范區), 국가 생태안전보장구(國家生態安全保障區)로 결정됨.
- 중국 발개위는 2009년 연말 전까지 정식계획보고서를 완성하여 국무원의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중국 과학원원사(科學院院士)이자 중국과학원 지리과학·자원연구소(地理科學與

1) “청위경제구구역 계획편집공작 좌담회”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 부주임 두잉(杜鵬)의 주최로 청두에서 개최되었음.(2009.7.9)

2) 쓰촨성의 14개 시와 현, 충칭시의 23개 구역과 현으로 구분됨.

資源研究所) 연구원 루다다오(陸大道)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청위경제구를 “12·5계획”에 포함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³⁾

□ 2007년 6월 7일 청두와 충칭은 “전국 통합도농 종합적인 체제개혁 시행시범구(全國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區)” 설립을 비준 받음으로써 광둥(廣東) 선전(深圳), 상하이(上海) 푸둥(浦東), 텐진(天津) 빈하이(濱海)에 이어 국가급 경제개혁 시행시범구가 되었음.

□ 2009년 4월 28일 국무원은 충칭시의 “통합도농 종합적인 체제개혁 시행시범의 총체적인 방안(重慶市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 이하 ‘방안’)”을 비준하였음.

- ‘방안’에서는 충칭의 △신형공업화 도시화 추진 지원, △시범 개혁의 적극적인 추진, △서부 경제 성장지와 창장상류경제중심(長江上游經濟中心) 건설 가속화 등 전국 통합도농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도농 경제협력 발전, △도농 노동경제의 건전한 발전, △토지유통과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중심으로 통합도농 발전을 위한 12가지의 신(新) 메커니즘 건립을 명시함.

- 충칭시 발개위 주임 양칭위(楊慶育)는 12가지 중 하나인 도농 인구의 합리적인 분포를 위한 신 메커니즘 건립을 위해 농민공이 도시에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었다고 밝힘.⁴⁾

- ‘방안’은 개혁시범을 추진하는 16가지의 중점임무를 제시하였음. 가령 △도농 계획제도 실시, △도농자원하향(下鄉), △사회보장제도 시스템구축, △임권(林權)과 토지승포 경영권 유통 등 재산권제도에 관하여 올해 중점적으로 개혁할 것을 명시

□ 2009년 5월 21일, 청두 역시 “통합도농 종합적인 체제개혁 시행시범의 총체적인 방안(成都市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 이하 ‘방안’)”에 대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

3) 충칭 사회과학원 구역경제연구센터(社科院區域經濟研究中心) 리용(李勇)연구원에 의하면 청위경제구의 구역범위에 대한 쓰촨과 충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청위경제구의 계획이 지연되면서 결국 국가의 “11·5 총체계획”에 포함될 수 없었다고 함.

4) 예컨대, 과거에는 도시로 호적을 옮기기 위해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고등학교 또는 동등 학력만이 필요하다고 함.

- ‘방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발전개혁의 총체적 방향, △통합발전의 주요임무, △개혁혁신의 주요임무, △‘방안’실시의 보장대책으로 구성됨.
- ‘방안’은 삼농(三農)문제 해결을 가장 중점에 두고 시스템,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산업발전을 지원하여 신형공업화, 신형도시화, 농업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명시함.
- 또한 청두를 서남물류와 비즈니스센터, 금융센터, 과학기술센터, 교통·통신 요충지로 만들고 중국에서 중요한 첨단기술 산업기지, 현대제조업기지, 현대서비스업기지, 현대농업기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힘.

나. 서삼각경제구(西三角經濟區)⁵⁾

- 서삼각경제구는 서부지역 GDP중 40%를 차지하는 경제지대로 새로운 국가급 성장지로 급부상 하고 있음.
- 충칭시는 전국양회(2009.3.2~13)에서 충칭경제권(經濟圈), 청두 경제권, 시안의 관중(關中)경제권을 서로 결합한 서삼각경제구를 형성해 줄 것을 국가에 건의함과 동시에 국가의 “12·5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그림2 참고).
- 그러나 일부에서는 청유경제구가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음을 언급하며 서삼각경제구가 “12·5” 계획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이후 충칭, 쓰촨, 산시의 성시 발개위는 “서삼각경제구 기본방향(西三角經濟區基本思路)”을 공동으로 논하고 수정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작성함(2009.7).
- 또한, “협력프레임협약(合作框架協議)”을 체결(9월)하는 등 서삼각경제구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5) 충칭, 청두, 시안으로 구성된 경제구로써 총 면적이 22만 km이며 약 1.18억 명의 인구가 있음. 서삼각경제구는 비공식적으로 전해져오다 올해 전국양회에서 충칭시위원상무위원(市委常委)이자 상무부시장(常務副市長) 황치관(黃奇帆)에 의해 처음 공식적으로 제시됨.

□ 충칭, 청두, 시안은 서삼각경제구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지형적 이유⁶⁾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문제해결을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결정함.

- 쓰촨, 산시, 충칭의 발개위는 “충칭~청두~시안~충칭”이라는 철도 순환선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칭시가 “서삼각경제구 종합교통 계획(西三角經濟區綜合交通規劃)”을 편집하여 초고가 완성되었다고 밝힘.

- 청두~시안 간 철도 공사는 “중국 중장기 철도망 계획(中國中長期鐵路網規劃)” 중의 중요 여객전용철도 프로젝트로 이를 위한 측량 조사를 모두 마쳐 2009년 11월 정식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청두~시안 간 약 2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 관중-텐수이경제구(關中-天水經濟區)

□ “관중-텐수이경제구 발전계획(關中-天水經濟區發展規劃, 이하 ‘계획’)”은 2009년 5월 국무원의 비준을 획득하였음.

- 계획은 관중-텐수이경제구를 전국 내륙형 경제개발개방 전략고지(內陸型經濟開發開放戰略高地)로 조성할 것을 제시함.

- 이외에, 선진제조업중요기지(先進製造業重要基地), 현대농업첨단기술산업(現代農業高科技產業)기지, 중국문명을 보여주는 역사문화(歷史文化)기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함.

- 관중-텐수이경제구의 계획범위는 산시(陝西)성의 시안, 셴양, 동촨, 웨이난, 바오지, 상뤄(일부 현)와 간쑤성의 텐수이시 관할행정구로 그 면적이 7.98만 km²이며 GDP는 서북지역의 28.6%(2007년 기준)에 이름.(그림3 참고)

□ ‘계획’은 2020년까지 관중-텐수이경제구의 GDP를 서북지역의 1/3, 1인당 GDP는 2008년 대비 4배 상승이라는 목표를 제시함.

6) 산시, 쓰촨, 충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있으나, 끊임없이 이어져 있는 친링(秦嶺)산맥과 빠산(巴山)산맥으로 인한 자연적 장애로 교통이 불편하고, 시간적 원가가 비교적 높았음.

3. 중부지역의 최근 변화와 전략

가. 중부지역 굴기촉진 계획

- 2009년 9월 23일 “중부지역⁸⁾ 굴기 촉진 계획(促進中部地區崛起規劃, 이하 ‘계획’)”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과함.(그림4 참고)
- 중부굴기(中部崛起)의 개념은 2003년 처음 제시되었으며, 2004년 원자바오(溫家寶)총리가 정부공작보고 중 처음으로 명확하게 언급함. 그 후 2005년 정부공작보고 중 재차 언급되었으며 이번계획을 통해 중부지역의 발전방향이 전면적으로 확정됨.
-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중부지역의 △경제발전 수준 제고, △ 발전 원동력 강화, △ 지속적인 발전능력 업그레이드 등을 목표로 함.

<그림 4>

6개

<그림 5> 갈로리

& 도 권



출처: 國際金融報(2009.9.25 일자), 山西証券股份有限公司(2009.9.24 일자)

8) 중국의 산시(山西),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6개 성(省)이 중부지역에 속하며, 중부지역의 총 토지면적은 102.75km²로 전 국토의 10.7%를 차지하며 총 인구는 3.65억 명이고, 전국 GDP의 21%를 차지(2008년 기준)하며, 전통적인 산업은 농업으로 농촌인구가 2.44억 명으로 전국 농촌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관련 부처	지원정책
국가발개위 (發改委)	△중부지역 메갈로폴리스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에 대한 제정을 연구, 우한·창주탄 메갈로폴리스, 완장 도시권역, 포양후생태경제구, 진산위황허진삼각 지역 등 중점구역의 발전을 추진
재정부 (財政部)	△중양재정의 혜농(惠農)정책 실시, △자동차, 비철, 원재료 등 중부 전통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중부지역의 태양전자·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발전을 추진
상무부 (商務部)	△산업이전시범원구와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건설 지원, △가공무역이 중부지역으로 이전되도록 촉진 ⁹⁾ , △서비스무역과 중부지역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투자(走出去)를 지원
공업·정보화부 (工業和信息化部)	△철강, 석유화학, 비철 등 우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전국 최고 원재료기지를 형성
교통운송부 (交通運輸部)	△중부지역 도로의 구간 건설을 적극 지원, 특히 동부와 서부 성(省)들의 연결통로를 건설.
철도부 (鐵路部)	△2009년과 2010년 중부지역 철도 인프라 구축에 약 7,5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신(新) 노선 7,000km를 건설할 계획, △이로 인해 중부지역 750만 일자리자리가 창출되고, 장비·금속·전자정보 등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
민항부문 (民航部門)	△2010년까지, 중부 6개 성 성도(省都)의 공항 확대 공사를 진행

출처: 山西証券股份有限公司(2009.9.24 일자)

□ ‘계획’은 식량생산기지(糧食生產基地), 에너지원재료(能源原材料)기지, 장비제조업(裝備製造業)기지과 종합교통운송중추지(綜合交通運輸樞紐) 건설을 계획

– 중부지역은 전통제조업 업그레이드와 첨단기술발전이 병존하는 곳으로 ‘계획’은 현대장비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기지의 건설을 분명히 밝힘.

– 또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중부 지역 산업은 현대농업, 에너지원재료, 현대장비제조업 및 하이테크 산업, 교통운수업, 순환경제, 문화체육사업, 의료 보건산업, 체제개혁 완비 등 임.

□ 더불어 우한메갈로폴리스(武漢城市群), 창주탄(長株潭)메갈로폴리스, 포양후생태경제구

9) 2007년 말, 상무부는 “중서부지역 수용 가공무역 이전 공작에 관한 의견”을 발표, 산업이전을 수용할 수 있는 9개 도시, 즉 장시의 난창(南昌)과 간저우(贛州), 후난 천저우(郴州), 후베이 우한, 안후이의 허페이(合肥)와 우후(蕪湖), 허난의 신시양(新鄉)과 자오쥘(焦作), 산시 타이위안(太原)을 결정하였으며, 9개 도시 모두 중부지역에 속함.

(鄱陽湖生態經濟區), 완장도시권역(皖江城市帶), 진산위황허진삼각(晉山豫黃河金三角) 지역 등 중점구역을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지를 형성할 것이라고 함.

- 현재 중부지역 메갈로폴리스에는 중위안(中原) · 우한 · 창주탄 메갈로폴리스, 완장도시권역 등이 있고 (그림5 참고), 중부청서(藍皮書)가 예측한 수치에 의하면 중부 메갈로폴리스의 GDP는 약 4조 위안(3억 9,647.88억 위안)에 달하여 중부지역 GDP의 62.25%를 차지함.

□ ‘계획’ 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중부지역에 대한 정책지원을 제시함 (표1 참조).

나. 완장도시권역(皖江城市帶)

□ 완장도시권역은 “완장도시권역 산업이전 수용 시범구(皖江城市帶承接產業轉移示范區)”의 약칭으로써 주로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의 산업이전에 대한 시범형 혁신구(示范型創新區)를 일컬음.

- 완장도시권역의 범위는 9개의 완장도시, 즉 허페이, 마안산(馬鞍山), 우후, 통링(銅陵), 안칭(安慶), 차오후(巢湖), 츠저우(池州), 쉐청(宣城), 추저우(滁州)임.

- 완장도시권역은 중북 발전 배체와 결점 보완이라는 원칙에 따라 산업이전을 수용하며 주로 창장삼각주의 농산품 · 에너지원재료 · 여행레저기지 및 중부지역에 가장 중요한 현대장비제조 ·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함.

□ 완장도시권역은 안후이성의 첫 국가급 계획으로써 “완장도시권역 산업이전 수용 시범구 계획”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임.

- 2009년 초 시범구 계획의 편집 작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으며, 중국 발개위 주임 장핑(張平)과 안후이의 성장 왕산원(王三運)이 직접 팀장을 맡아 완장도시권역 산업이전 수용 시범구 계획 초안을 작성 완료함.

- 22개의 중앙부처 총 80여 명의 전문가가 연합조사연구팀을 결성하여 안후이의 기업, 원구(園區), 항구, 중점 건설 프로젝트 등의 현지조사 실시(2009.7.16~21) 후 시범구 계획 중 전략적 위치결정, 산업이전 집중구 건설, 산업공간구조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함.

다. 포양후생태경제구(鄱陽湖生態經濟區)

□ 장시(江西)성에 위치한 포양후는 장시성의 중요한 공업과 농업생산기지임.

- 중국 최대의 담수호인 포양후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자 철새의 월동지로 중국 4대 담수호 중 유일하게 부영양화가 없는 호수임.
- 포양후는 저수량 조절을 통해 매년 창장으로 유입되는 수량(水量)이 평균 1,450억 m³로 창장 중·하류의 생태안전을 보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음.

□ 포양후생태경제구는 전국 생태문명건설의 시범적 구역으로써 장시성의 발전뿐만 아니라 중부지역 굴기전략, 창장 중하류 지역의 신속한 발전에도 중대한 의의를 지님.

- 장시성이 발표한 “포양후생태경제구 계획”에 근거하면 계획범위는 난창(南昌), 징더전(景德鎮), 잉탄(鷹潭) 3개 도시 및 지우장(九江), 신위(新余), 푸저우(撫州), 이춘(宜春), 상라오(上饒), 지안(吉安)의 일부 현으로 모두 38개 지역이며 면적이 장시성 면적의 30.7%를 차지하는 5.12만 km²임.

- 난창은 자동차, 의약 전자정보 제조업, 항공 산업, 상업과 무역 유통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우장은 중요한 공업기지 중 하나로 장비제조, 경공업, 석유화학, 전자재 등 산업에서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징더전은 도자기업, 항공과 자동차제조업, 상라오는 비철금속가공업, 기계제조업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잉탄은 물류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장시성은 포양후생태경제구를 생태문명시범구(生態文明示范區), 신형산업집합구(新型產業集聚區), 개혁개방선진구(改革開放前沿區), 도농협력선행구(城鄉協調先行區), 장시굴기선도구(江西崛起帶動區)로 만들 계획임.
- 포양후생태경제구 계획 완비를 위해 국가 중앙부처가 연합팀을 구성하여 계획범위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2009.4.14~18)하였으며, 본 조사는 종합팀, 생태환경팀, 농업팀, 수리팀, 공업서비스업팀 등 8개 팀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 일부에서는 포양후생태경제구를 중점 발전시키겠다는 “중부지역 굴기촉진 계획”을 언급하며 포양후생태경제구 계획이 이미 비준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견해도 있음.

<참고자료>

- 《人民日報》, “評論:怎么看中西部地區的‘快’”, 2009.8.11
- 《四川日報》, “四川日報成渝經濟區規劃初步框定四川15市重慶31區縣”, 2009.7.10
- 《重慶時報》, “我市31區縣納入成渝經濟區重慶:重化工 成都:輕工業”, 2009.7.17
- 《華龍網》, “國務院批准重慶統籌城鄉綜合配套改革試驗總方案”, 2009.6.1
- 《四川新聞網》, “國務院批復成都統籌城鄉發展綜合配套改革試驗總體方案”, 2009.9.22
- 《經濟觀察報》, “西三角:龍抬頭”, 2009.10.3
- 《山西証券股份有限公司》, “中部崛起規劃終推出區域振興在添‘新軍’”, 2009.9.24
- 《中廣網》, “國家聯合調研組來江西 實地調研鄱陽湖生態經濟區”, 2009.4.16
- 《安徽省人民政府網站》, “皖江城市帶承接產業轉移示范區規劃工作調研綜述”, 2009.7.24
- 《新華社》, “鄱陽湖生態經濟區即將納入國家戰略”, 2009.9.29

(자료 정리: 중국인민대학교 재정금융학원 박사과정 신금미)